

대구주보

연중 제26주일

2009. 9. 27. (나해) | 제1641호



작품 : 한가위(추석을 맞아 주님께 드리는 찬양을 표현한 작품)
전례꽃꽂이연구회 윤형순(나탈리아)

오늘의 미사

입당송

주님, 저희가 당신께 죄를 짓고 계명을 따르지 않았사오니, 당신이 저희에게 하신 그 모든 것 진실한 판결이었나이다. 당신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소서. 저희에게 크신 자비를 베푸소서.

제1독서 민수 11,25-29

화답송

◎ 주님의 규정 올바르니 마음을 기쁘게 하네.

제2독서 야고 5,1-6

복음환호송

- ◎ 알렐루야.
- 주님, 당신 말씀은 진리이시니,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여 주소서.
- ◎ 알렐루야.

복음 마르 9,38-43, 45, 47-48

영성체송

주님, 당신 종에게 하신 말씀 기억하소서. 저는 그 말씀에 희망을 두었나이다. 당신 말씀 고통 속에서서도 위로가 되나이다.

하느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김상열 토마스 데 아퀴노 신부
고성성당 주임

하느님의 축복을 보다 많이 받거나 쉽게 받을 수는 없을까? 아니면 적어도 내가 받은 축복을 오래 간직하거나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은 없을까? 이 질문들은 마치 신앙생활에 왕도(王道)가 따로 있는가 하는 질문과 유사하지만 사실 이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항상 마음속 깊이 품어왔던 생각이다.

내가 어렸을 때부터 외워왔던 요리문답을 살펴보면 하느님의 은총을 얻는 방법을 다음과 같이 간단하게 정의하고 있다. 성총(聖寵)을 얻는 방법은 무엇이뇨? 기도와 성사니라. 사실 이는 너무나 간결하고 명백하기에 당시 주일학교 상황에서는 여기에서 더 이상 한 걸음도 나아갈 방법이 없었다.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기에 삼 십여 년 전 신학교에 들어간 이 후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문제를 궁리해 왔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신구약성서 전체를 계속해서 찾아보아야 했다. 먼저 하느님의 축복과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성서의 주인공들(아브라함, 야곱, 모세, 다윗 등)을 통하여 **하느님의 축복은 이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받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주어지고 머무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 예언자들과 주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하느님의 축복은 의인이나 죄인이나 구별없이 공평하게 주어지기에 **하느님의 축복은 받는 것보다 그것을 지키고 간직하는 것이 더욱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그리스도의 사람이기 때문에 너희에게 마실 물 한 잔이라도 주는 이는, 자기가 받을 상을 결코 잃지 않을 것이다.”(마르 9,41) 그러기에 오늘 복음에 나오는 이 말씀은 하느님

의 축복을 지키고 간직하는 측면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 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요즘은 각 본당에서는 제 6대 사목평의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간부선임 때문에 진통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이는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망각하고 있기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닌가 싶다. 오늘 복음을 살펴보면 주님께서서는 당신의 사업을 수행하는 제자들에게 물 한 잔이라도 대접하는 이들에게도 큰 상을 약속하셨다. 이는 하느님 사업 즉 교회의 사업에 참여하는 이들뿐만 아니라 이들을 돕는 모든 사람에게 하신 약속이다. 다시 말하면 하느님의 축복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축복을 간직하고 빼앗기지 않는 가장 확실하고 쉬운 방법이 교회의 사업에 직접 참여하고 또한 그들을 적극적으로 돕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교회의 사업에 간부로 참여한다는 것은 여러 가지 희생을 동반하는 어렵고 힘든 일이다. 따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를 기피하고 간부직을 맡기를 주저하고 있다. 하지만 이는 하느님 사업에 직접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며 주님의 축복의 대상이 되는 확실하고도 가장 쉬운 길이기도 하다.

하느님의 축복을 보다 많이 받거나 쉽게 받을 수 없을까? 또는 내가 받고 있는 축복을 오래 간직하거나 잃어버리지 않는 방법이 없을까? 아니 있다. 있을 뿐만 아니라 가능하다. 교회의 간부직에 부름을 받았을 때 기쁘게 응답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러할 때 나뿐만 아니라 가족을 포함한 나를 도와 주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느님의 축복이 주어지고 머물러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



성모당과 로마 성모대성전과의 특별한 영적 유대

리베리오 교황 성모 대성전과 영적인 유대를 새롭게 하고자
교황청 내사원에 청원하여 특별한 관계를 맺고
영적 유대의 거룩한 장소로 지정된
성모당에서 아래와 같이 하는 신자들은
바로 성모 대성전에서 누리는 모든 전대사를 받습니다.

1. 성모 대성전 후보 축일(8월 5일)
2. 성모당 후보 축일 : 루르드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축일(2월11일), 성모당 봉헌 축일(10월13일)
3. 전례력 안에 있는 복되신 동정 성모 마리아의 대축일 :
천주의 성모 마리아 대축일(1월1일), 주님 탄생 예고 대축일(3월25일),
성모 승천 대축일(8월15일), 원죄 없이 잉태되신 복되신 동정마리아 대축일(12월8일)
4. 한 해에 한 번, 어느 날이든 신자가 자유롭게 선택한 날
5. 성모신심 목적으로 단체로 성모당을 순례 할 때마다.
이 전대사는 통상적인 조건 아래 기꺼이 수여됩니다.

전대사 조건 :

- 1) 통상적인 조건(고해성사, 영성체, 교황님의 뜻에 따른 기도) 이행
- 2) 성모당에서 이루어진 진정한 통회
- 3) 성모당 예식(미사와 신심 행사)에 경건하게 참여
- 4) 적어도 한 번의 주님의 기도와 사도신경을 바칠 것

▶ 우리 교구는 성모당을 “로마 성모대성전과 특별한 영적 유대로 결합된 성모 순례지”로 2009년 2월 23일에 신청을 하였고, 로마 성모대성전 수석 사제 버나드 프란시스코 추기경께서 2009년 3월 27일자로 성모당이 로마 성모대성전과 특별 영적 유대로 결합되었음을 통지하여 주셨습니다. ☞

배롱나무 아래서

유경숙 로사 | 소설가

저는 지금, 잠두봉 난간에 서있습니다. 9월이 되면 저도 모르게 이곳으로 발걸음이 옮겨집니다. 절두산 마당에 서있는 배롱나무를 바라보고 있으면 소소영영(昭昭靈靈)한 한줄기 빛이 제 정수리를 스쳐가는 듯합니다. 오늘따라 다복다복 핀 꽃송이들이 더욱 선명한 진홍색을 발하며 간간히 향기를 날립니다. 백육십여 전 그날, 이 땅에 떨어진 임들의 뜨거운 선혈이 저 꽃잎처럼 진홍빛이지 않았을까? 해서 자꾸만 발밑을 돌아보게 됩니다.

이곳 잠두봉(蠶頭峰)은 누에가 대가리를 치켜든 모습과 닮았다하여 소박한 이름을 지녔던 산이었습니다. 낭떠러지 아래로 한강의 푸른 물줄기가 굽이치는 나무를 낀 강가였지요. 그날, 선혈이 낭자했던 사건을 겪고 다시 태어난 이름 '절두산(切頭山)순교성지'. 저는 지금 그 난간에 서서 그날의 참수현장을 그려봅니다.

십여년 전 소설 『금취학령(禁醉鶴翎)』을 쓰다 전북 완주군 퇴재공소를 찾게 되었지요. 겹겹으로 둘러싸인 산속에 백년이 넘는 성당과 교우촌이 그대로 공존했었어요. 그들의 할아버지들은 모진 박해를 피해 내포지방에서 숨어들어온 천주학생들이었다고. 숯과 옹기를 구우며 초대공동체의 삶을 재현하며 살았다고 하더군요. 그들의 피난 루트를 따라가다 보니 김대건 신부의 생가가 있는 솔피까지 이어졌어요. 그래서 그분과의 인연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그분

의 발자취를 좇아 길을 나섰습니다. 소년시절 유학을 갔던 마카오 신학교와 목선 한척에 몸을 싣고 고국으로 향했을 항구도 찾아가보았지요. 거칠게 출렁이는 파도를 바라보며 희망보다는 두려움이 더 컸을 그때 심정을 헤아리게 되었지요. 어디서 그런 용기가 나왔을까? 그 후 목선 라파엘호가 표착했다던 제주도 용수리포구를 찾았고 모형으로 만들어 놓은 선체에 몸을 실어보기도 했습니다. 사제품을 받고 귀국해서 맨 처음 숨어들었다던 금강하구의 나바위 화산자락을 돌며 위험스러웠던 발자국을 조심조심 따라가 보았지요. 그분의 순례는 물길 위에서 시작되었고 물길 위에서 멈추었습니다. 최후의 순간 역시도 한강변에서….

저는 올해 26살인 제 아들의 얼굴을 가만히 들여다보며 그분의 모습을 떠올려봅니다. 아직 이마의 푸른 빛도 벗지 못한 저 나이에 어떻게 그토록 엄청난 결심을 했었을까? 휘광이의 칼날 아래 거침없이 목을 드러내주며 “이렇게 하면 잘 벨 수 있겠느냐?” 했다면 무서운 용기. 맑은 눈동자 초롱초롱 뜨고 받았을 서슬 퍼런 칼날, 생각만 해도 오싹 소름이 끼칩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조차도 용서 못할 비겁한 겁쟁이가 될 때가 있지요. 그럼 스스로 보속을 내리고 이곳 잠두봉에 올라와 ‘십자가의 길’을 바칩니다. 그리고 나면 조금은 위로가 되지요. 9월이 가기 전에 절두산에 꼭 한번 와보십시오. 배롱꽃이 절정을 이뤄 피 흘린 선조들의 넋을 기리는 듯합니다. 꽃잎처럼 가신 순결한 넋이여! 하늘나라에서 무량한 영광 받으소서! ☞

방법은 달라도

박성규 엘리시오





영성의 향기

성령과 사명

:: 신앙의 힘

신앙은 예수님을 신뢰하는 것에서 출발합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약속을 믿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신뢰 해야만 합니다. 의심하거나 약한 모습을 보임 없이 예수님께 자기 자신을 넘겨 드릴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우리 자신의 힘만으로는 십자가의 무게를 견딜 수도 없고 외적으로 희미하게 보이는 구원을 받아 들일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는 그런 것들을 극복할 힘을 주십니다. 신앙은 우리 정신과 마음을 비추어 주고 하나님 나라의 존재함을 보여 주고 현재의 삶을 밝혀 줍니다. 또한 신앙은 구원을 위한 용기와 영감과 지구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 투쟁이 필요 한 때

누구도 혼자서 신앙생활을 할 수는 없습니다. 신앙이란 공동체적인 것입니다. 또한 공적인 것이기도 하지요. 우리는 온 인류, 온 세계라는 광장에서 인류의 일원으로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신앙생활이란 불신을 만나기도 하고 신앙의 결여나 거짓된 종교적 실천이나 환상에 기초한 거짓 신앙의 가르침과 이념을 만나기도 합니다. 이런 모순 때문에 신앙은 자기 자신과 사회에서 신앙의 투쟁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우선 개인적인 불신의 적과 싸우고 두려움과 소심함과 투쟁도 해야 하고 공개적으로 선포하기 위하여 용감히 나서야 하기도 합니다. ☞

- 권 가타리나 수녀 -

짧은 글 - 깊은 생각

효자 이야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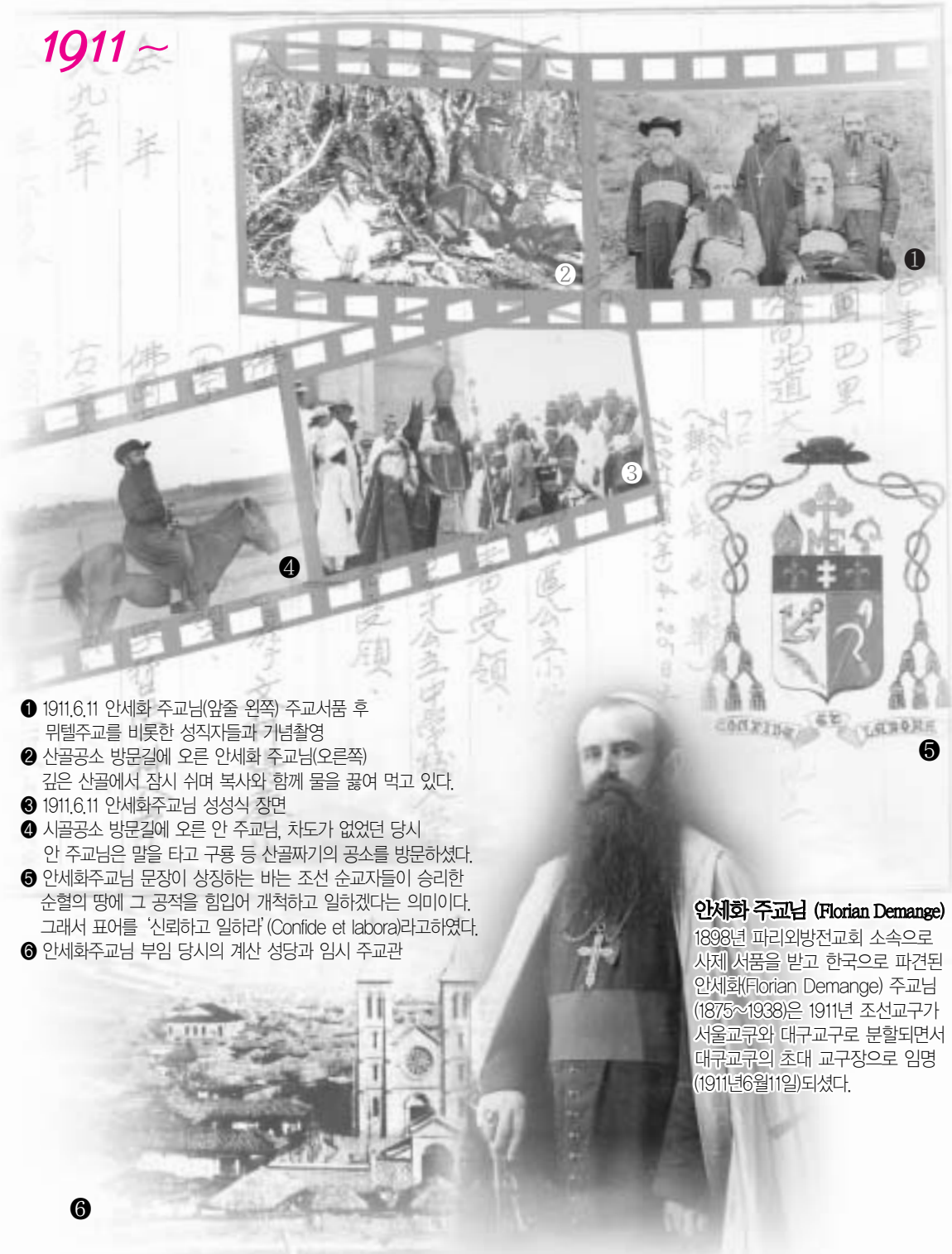


어느 도시의 효자가 시골에 이름난 효자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를 찾아갔습니다. 시골 효자의 집은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이었는데 조금 기다리니 누추한 옷을 입은 청년이 나무 한 짝을 지고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부엌에 있던 노모가 부리나케 뛰어나와 아들의 나무짐을 받쳐 내려 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황급하게 뛰어 들어가더니 대야에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따뜻한 물을 떠왔습니다. 어머니는 아들을 마루에 앉히고는 열심히 아들의 발을 씻기면서 무엇이 그렇게 즐거운지 이야기 꽃을 피웠습니다. 잠시 후 그를 찾아간 도시 효자는 충고했습니다. “여보게, 어떻게 기력도 없으신 어머니께 발을 씻겨 달라고 하는가? 효자라는 소문을 잘못 들은 것 같군.” 그러자 시골 효자는 말했습니다. “저는 효가 무엇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어머니가 하시고자 하는 일이면 무슨 일이든지 기쁘게 해 드립니다.” 이 말을 들은 도시 효자는 깨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자기 생각대로 부모님을 공경해 왔음을 알았습니다. 그 부모님의 얼굴에는 저 시골 효자의 어머니 같은 환한 웃음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는 진정한 효란 좋은 잠자리와 음식, 많은 용돈보다 부모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그분을 기쁘게 하는 것에 있다는 중요한 사실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

- 율겨온 글입니다. -

사진으로 보는 교구100년사(1)

1911 ~



- ① 1911.6.11 안세화 주교님(앞줄 왼쪽) 주교서품 후 워털주교를 비롯한 성직자들과 기념촬영
- ② 산골공소 방문길에 오른 안세화 주교님(오른쪽) 깊은 산골에서 잠시 쉬며 복사와 함께 물을 끓여 먹고 있다.
- ③ 1911.6.11 안세화주교님 성성식 장면
- ④ 시골공소 방문길에 오른 안 주교님, 차도가 없었던 당시 안 주교님은 말을 타고 구룡 등 산골짜기의 공소를 방문하셨다.
- ⑤ 안세화주교님 문장이 상징하는 바는 조선 순교자들이 승리한 순혈의 땅에 그 공적을 힘입어 개척하고 일하겠다는 의미이다. 그래서 표어를 '신뢰하고 일하라' (Confide et labora)라고하였다.
- ⑥ 안세화주교님 부임 당시의 계산 성당과 임시 주교관

안세화 주교님 (Florian Demange)

1898년 파리외방전교회 소속으로 사제 서품을 받고 한국으로 파견된 안세화(Florian Demange) 주교님(1875~1938)은 1911년 조선교구가 서울교구와 대구교구로 분할되면서 대구교구의 초대 교구장으로 임명(1911년6월11일)되었다.

⑥



■ 교구설정 100주년 준비위원회

2009년 현재 대구대교구 평신도사도직단체협의회 2 - 액션단체

전광진 엘마노 신부 / 교구사무기획 실장

3) 동호회 : 16개

국악예술연합회(담당사제 : 이정호신부, 회장 : 이명도 레미지오 형제), 남성합창단(담당사제 : 김종현신부, 회장 : 전창호 토마스아퀴나스 형제), 문인회(담당사제 : 이정우신부, 회장 : 정재숙 소피아 자매), 마라톤동호회(담당사제 : 임종필신부, 회장 : 이재근 하롤드 형제), 미술인회(담당사제 : 김도윤신부, 회장 : 이철희 T.아퀴나스 형제), 사진가회(담당사제 : 장효원신부, 회장 : 조기현 베라노 형제), 여성합창단(담당사제 : 김종현신부, 회장 : 송순조 수산나 자매), 음악인협회(담당사제 : 김종현신부, 회장 : 이혁우 시몬 형제), 전례꽃꽂이연구회(담당사제 : 김영호신부, 회장 : 이미숙 매임데레사 자매), 전례미술연구회(담당사제 : 나기정신부, 회장 : 김상현 가브리엘 형제), 전례생활연구회(담당사제 : 나기정신부, 회장 : 김진보 아오스딩 형제), 체육인회(담당사제 : 이경수신부, 회장 : 김선용 요셉 형제), 고려수지신우회(담당사제 : 장효원신부, 회장 : 김정자 데레사 자매), 요셉발간강회(담당사제 : 최시동신부, 회장 : 이종해 골롬바 형제), 게이트볼동호회(담당사제 : 하성호신부, 회장 : 하요한 세레자요한 형제), 아마추어무선사회(담당사제 : 이용호신부, 회장 : 김정일 디모테오 형제)

4) 학생, 교사단체 : 7개

고등부 CELL연합회(담당사제 : 박정근신부, 회장 : 서상언 프란치스코 형제), 대구지역가톨릭청년협의회(대리구 자체 운영), 대학생연합회(담당사제 : 문창규신부), 스카우트지구연합회(담당사제 : 임석환신부, 대표 : 양해

동 사무엘 형제), 유아교육사도직협의회(담당사제 : 이상국신부, 회장 : 이숙자 세쿤다 수녀), 중등교원사도직협의회(담당사제 : 박정근신부, 회장 : 서상언 프란치스코 형제), 초등교원사도직협의회(담당사제 : 채창석신부, 회장 : 구창남 가타리나 자매)

5) 기타 : 16개

공소후원회(담당사제 : 장영일신부, 회장 : 서은주 루실라 자매), 관덕정순교자현양사업회(담당사제 : 서준홍신부, 회장 : 최휘철 네레오 형제), 교정사무후원회(담당사제 : 노건우신부, 회장 : 김정윤 토마스 형제), 공중후원회(담당사제 : 박철신부, 회장 : 박경호 비오 형제), 미바회(담당사제 : 추성호신부, 회장 : 이지원 헬레나 자매), 민족화해후원회(담당사제 : 임종필신부, 회장 : 김홍은 요셉 형제), 베리파스장학회(담당사제 : 장영일신부), 해외선교후원회(담당사제 : 최창호신부, 회장 : 백승봉 베드로 형제), 휴양 및 은퇴 사제후원회(담당사제 : 장영일신부, 회장 : 황귀옥 필로미나 자매), 노동장년회(담당사제 : 이상해신부, 회장 : 강관중 다마스 형제), 노동청년회(담당사제 : 이상해신부), 가두선교단(담당사제 : 이정호신부, 회장 : 장시호 대건안드레아 형제), 본당사무직원회(담당사제 : 하성호신부, 회장 : 이태기 안드레아 형제), 농아선교회(담당사제 : 김기진신부, 회장 : 전영옥 마리아 자매), 시각장애인선교회(담당사제 : 신중호신부, 회장 : 윤덕수 아오스딩 형제), 한중천주교 친선협회(담당사제 : 이종건 신부, 회장 : 이창규 T.아퀴나스 형제)

대구가톨릭대학교의 변화와 상승!

- 원디자인대학 신설
산업디자인과, 디지털디자인과 신설
- CU인재학부 개설
기초의치 약학전공, 고위공직 법학전공
- 보건과학대학 안경광학과,
언어청각 치료학과 신설

분도는 한 방울의 기름도 속이지 않습니다!

분도석유
전화 한 통화면 어느 곳이든 달려갑니다.
☎ 080-421-5151(무료전화)
424-2240, 743-1977, 957-9543
- 룯 데 째 -

대구시교육청교사연구기관인정
초록꽃행동치료연구소
◆ADHD, 행동발달지체, 자폐증, 반항·공격장애
◆주의산만, 학교생활 부적응, 학습부진,
친구관계 부적절 등 상담교육
☎ 762-7872 www.gfbt.org
소 장 조 정 연 (안센터)
상담실장 황 문 지 (아카데미)

결혼정보회사
MJ 마리아 요셉 결혼이야기
(미혼, 만혼, 재혼)
서울 - 고객상담 02)3141-3888
회원상담 02)338-0788
부산 - 고객상담 051)817-3888
회원상담 051)807-6205
전국대표전화: 1566-6205
http://mjms.co.kr (마리아요셉.com)

내시경센터 · 검진센터
하나종합내과
(구 도재육내과)
무통(수면) 위/대장내시경(용종절제)
성인병검진, 5대암검진, 종합검진
환장 허성욱(마태오), 조규원, 도재욱
예약 ☎ 655-7890
호텔 크리스탈 옆 / 지하철 2호선 반곡역 3번 출구

눈 EYE CLINIC 대구안과 의원
(수술전문과, 안내수정체삽입술(근시교정)
초음파, 백내장(노안 및 난시교정)
원장, 전문의 이 호 성 (아우구스티노)
원장, 전문의 조 영 수 (다미아노)
전문 의 장 우 호, 이 동 수
위치 : 서부정류장과 세강병원사이
Tel. 053) 651-2233

한길기획 대표 이 호 민 (시드오안)
교회관련 인쇄물 · 광고 · 기획
리플렛 등 인쇄 판촉물의 모든 것
252-7654 011-538-7754
계산오거리 국민은행 | 빈달방
가톨릭대학교 | 동광리동 | 자동차 | 남문시장 | 명덕
부속골목 | 내거리 | 내거리

닥터클리닉
해충방제, 건물종합청소관리,
냉·난방기기크리닝
고객의 쾌적한 삶을 위한24시! Fresh your life!
성요셉성당 김귀덕(요셉)
Tel. 653-9901

★ 모임행사 ★

33일 봉헌 묵상회

- 일시: 9.29(화)14:00~11.3(화) 봉헌식
- 장소: 푸르실로 교육관(남산동)
- 회비: 2만원(티업오신 마리아 성심 재속회)
- 신청: 010-2635-0534 / 010-9620-4820

수도 생활 체험 캠프

- 일시: 10.10(토) 14:00~11(일) 저녁기도
- 장소: 대구 포교 베네딕도 수녀원
- 문의: 010-8519-3431 / 313-3431

떼제기도회

- 일시: 10.10(토) 20:00, 장소: 삼덕 젊은이성당

묵주기도의 성모님축일, 남양성모성지 봉헌미사

- 일시: 10.7(수) 10:00 묵주기도 / 11:00 미사
- 14:00 축하 음악회 및 성제강복
- 주례: 주한 교황 대사 오스발도 파딜라 대주교, 최덕기 바오로 주교 공동 집전
- 문의: 남양성모성지 031-356-5880

★ 성소 모임 · 피정 ★

남녀 젊은이 철야피정

- 주제: 'God will make away'
- 일시: 10.10(토) 20:00~11(일) 07:00
- 대상: 청년, 모든신자 (선착순 250명)
- 장소: 예수성심수녀회, 회비: 10,000원
- 신청: 다음카페 luxamor486 / 010-2649-2045

서울포교베네딕도수녀회 성소모임

- 일시: 10.4(일) 14:00
- 장소: 돈암동 본원, 문의: 010-6259-6364

※ 성소상담 언제나 가능

(부산)분도 명상의 집 묵상 피정

- 일시: 10.9(금) 17:00~11(일) 13:00
- 준비물: 성경 또는 매일 미사책, 피정비 9만원
- 문의: 051-582-4573 / 010-6650-4574

노들담수녀회 성소피정

- 일시: 10.10(토)~11(일) 14:00, 장소: 인천본원
- 문의: 010-6261-6319

★ 모집 ★

제4기분당지도자, 봉사자(구역장·반장 포함)리더십교육

- 일시: 10. 5.(월) ~ 9(금) 19:00 ~ 22:00
- 장소: 교구청 별관 1층 대화합실
- 신청 및 문의: 사목국 250-3056, 팩스 250-3054

파스카 청년성서모임 팀모집

- 단계: 창세기,탈출기,마르코,요한,사도행전
- 문의: 255-1582 (평일 14:00이후)

주교좌 계산성당 성경강좌 개강

- 일시: 10.6(화)부터
- 청년 성경모임: 구약성경(화) 20:00
- 중·장년 성경강좌(신약성경)어르신성경모임(탈출기)(목)10:00
- 중·장년 성경강좌 나누기: (목) 20:00
- 신청: 9.30(수)까지, 문의: 254-2300~1

제11기 성요셉 아버지학교 개설

- 일시: 10.10(토) 15:00~22:00 매주 토(6주간)
- 장소: 교구청 별관1층 대화합실
- 대상: 자녀를 사랑하는 아버지면 누구나 가능
- 마감: 10.8(목), 신청비: 15만원
- 접수 및 문의: 639-2046, 팩스 641-3457

환경위원회 청강기술 교육 강좌

- 개강: 10.13(화)부터 오전반 10:00~12:00, 오후반 14:00~16:00
- 내용: 청강기술 기초반으로 6주(12시간)과정
- 신청인원: 선착순15명, 수강비: 8만원
- 장소: 대구교구 환경위원회 사무실(교육원 가동 2층)
- 문의: 253-3655

제41기 선교대학 개강

- 현장 실습 겸한 프레젠테이션 영상 교육
- 일시: 10.17(토) 10:00~16:00
- 장소: 주교좌 계산성당 계산문화관 3층 가두선교단
- 강사: 이관석 신부(선교단 지도)
- 문의: 한국천주교가두선교단 781-6100, 팩스782-8345

여성교육관 수강생모집(254-6115)

- 건강한 청소년 성교육을 위한 부모교육 특강10/7(수)
- CWEC여성아카데미 과정(10/12-16)개강 포스터참조
- 사랑의 윤리학, 저널리스트, 노인정신건강, 청춘 용서, 집단상담, 창작사신, 만화창작, 웃음치료, 수지침
- 어학,일본,독일,러시아,중국어,영어,꽃꽂이,부모교육

관덕정 영어 성경 공부반 모집

- 일시: 10.1(목) 10:00~12:00 화,목 강의
- 과정: 요한 복음(John) 및 탈출기(Exodus)
- 문의: 254-0151 / 010-2578-5535
- ※ 영어성경을 소리내어 쉽고 재미있게 읽어봅시다.

수도자와 함께 하는 순례의 길

- 일시: 11.4(수)~16(일)

- 내용: 이집트, 이스라엘, 터키
- 주최: 아씨의 프란치스코 전교수녀회 영성연구소
- 문의: 권루치아 수녀 010-7131-3097

2010학년도 (안동)가톨릭성지대학 신입생모집

- 안동교구에서 운영하는 전국 유일의 가톨릭 전문대학
- 수시모집 1차: 9. 9(수) ~ 10. 7(수)
- 문의:입사홍보처054851-3021~2, 팩스 054851-3009
- ※ 모집학과 안내는 대학홈페이지 참조 (<http://www.csj.ac.kr>)

TESOL 교육 양성과정

- 대구가톨릭대학교는 미국 아이버리그대학 University of Pennsylvania와 TESOL과정 개설, 장학혜택: 주임신부님 추천을 받은 합격자에게 한하여 장학금 100만원 지원, 개강일:11월2일
- 문의: 대구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 526-0111

★ 안내 ★

문제 응우자 가족대상 무료교육

- 일시: 10.12(월)부터 매주 월 14:00~16:00
- 문의: 대구가톨릭대학교콜센터 638-3778

노인장기요양기관 햇빛마을 어르신 입소 및 이용안내

- 치매, 뇌졸중등 노인성 질환의 어르신에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족의 신체적 정신적 부담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 대상: 장기요양 1~3등급 판정을 받으신 어르신
- 문의: 054-274-7744 / 054-275-7745

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09년 보험공단검진

- 대상:08년도 미수검자 및 09년도 대상자
- 문의:대구가톨릭대학교병원 (650-4591)
- 1차, 암, 영유아검진(암검진은 꼭 예약해야됨)
- 건강검진은 성인병 및 암조기 발견에 좋습니다.

(국내입양전문)입양 및 미혼도 상담, 후일 상담

- 문의:02-764-4741~3/www.holyfca.or.kr
- 서울가톨릭사회복지회 성가정입양원
- 군위요원 관리비(2차분) 납부 안내
- 2000.1.1(토)이전에 장례를 하신 묘주께서는 묘원관리비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비 미납시, 무연분묘 처리될 수 있습니다.
- 문의: 교구청 관리과 250-3003

군위요원 성묘안내

- 추석당일은 많은 성묘객으로 인해 교통 혼잡이 예상됩니다.

미 사	일 시	장 소	미 사	일 시	장 소
구미지역 밀알후원회 미사	9월 28일(월) 오전11시	도량성당	원로사제 월요 낮 미사	9월 28일(월) 낮12시	성모당
4대리구 포항지역 성소후원회 월례미사	9월 28일(월) 오전11시	죽도성당	민족의 화해와 일치를 위한 미사	10월 1일(목) 오후3시	성모당
			푸른군대 첫 토요일신심미사	10월 10일(토) 오후2시	성모당

결혼상담
20년 전통의 성가정을 위한 만남의 장

성심결혼
558-3003, 644-4007
비산내거리(사부 초등학교 옆)
류성실(마리아) · 함(논나)

“전국택배가능”
천제명 홍삼
추석선물 할인 30%~10%
도석록(스테파노) 이옥이(살바)
☎ 053-793-5325

달성피부관
BF:아도피센터 1F:레이저크리닉
2F:어드레스 탈모케어 3F:항노화동안크리닉

손 세경 다미아노
김인주 레지나
7호광장 두류역 2,3번 출구
Tel. 566-4333, 559-7575

이 원 의 료 기
노인장기요양보험·복지응구 판매
협업계,혈당계,혈체어,안가피,뜸,부항
변상범(도미카피) 김인숙(야타)

경대병원 응급실 앞
☎ 053-256-2512(대표),2513

밝은 눈 안과
원 장 임용식(라파엘) 장주희(헬레나)
전문의
당일수술 · 퇴원 초음파백내장 · 라식수술

수술전문병원
654-9660
지하철 2호선 두류역(9번출구)앞

약손 척추 교정원
디스크 · 비만 · 신경통
근골격계, 신경계질환
지압, 교정, 자세, 체질검사

28년 전통 이 루카 425-7695
대구역 옆 라이프 상가 245-1호
www.m-hand.co.kr

HSC 현대상조주식회사
직영:대구 전문장례식장 (동대구 I.C.영 961-4444)
<http://www.sangjoil14.net>
장례, 결혼, 칠순, 돌, 각종이벤트

24시간 상담전화: 1566-1678
대표이사 이 봉 상 (안토니오)

종합관리아웃소싱
(주)유니온 O.S

**청소 · 경비
인재 파견**
☎ 341-2001, 011-817-0157
대표: 류 스테파노